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’ 1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유현조, 고지원, 박민지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1일(목) ~ 8월 3일(일) |
| 3 | 장 소 | 오로라 골프&리조트 [마운틴(OUT) / 레이크(IN)] |
| 4 | 주 최 | 오로라월드(주)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0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이예원, 고지우, 노승희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  박지영, 한진선, 김시현, 송은아, 정지효, 박민지, 김소이, 성유진, 김수지  김도희(A), 김지영2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유현조,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공동 선두(15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46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캐디와 함께했는데, 생각보다 호흡이 좋아 걱정을 덜었다. 짧은 거리의 퍼트를 여러 번 놓쳤지만, 중장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좋은 스코어를 냈다. 미디어데이에서 말한 예상 우승스코어인 20언더파는 충분히 자신 있다.

**Q. 새 캐디와의 호흡은?**

공식적으로 처음 호흡을 맞추는 자리였지만, 원래 알고 지내던 캐디라 부담 없이 플레이 했다. 최종 판단은 내가 하지만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줬다.

**Q. 파5홀 공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비결이 있다면?**

파5홀에서 투온이 되면 버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중요한데 또, 퍼트가 따라주지 않으면 버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퍼트도 관건이다. 사실 둘 다 잘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 같다.

**Q. 오늘 실수가 많았다고 했는데, 이유는?**

1번 홀에서는 미스샷 이후 어프로치는 괜찮았지만 퍼트 실수를 했고, 11번 홀에서는 짧은 퍼트를 놓쳤다. 실수가 4번 정도 있었지만, 중장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라운드였다.

**Q. 코스가 해발 500m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, 비거리에 영향이 있는가?**

거리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. 연습 라운드에서도 예상 거리보다 많이 남았고, 다른 선수들도 비슷하게 느꼈다고 했다. 오늘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대략적으로 250야드 정도로 예상한다.

**Q. 날씨는?**

오전에는 흐려서 버틸 만했다. 그러나 오후에 해가 뜨면서 엄청 더워지기 시작해 힘들었다.

**Q. 연속 톱텐 기록에 대한 부담은?**

사실 처음에는 그 기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,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대기록인 걸 느끼기 시작했다. 기록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지만, 좋은 성적이 이어지는 건 기쁘다.

**Q. 내일 전략은?**

그린 사이드의 경사와 위치를 잘 파악하고, 무리한 공략보다는 파세이브를 목표로 하겠다. 파5홀에서 기회가 왔을 때 버디를 노릴 생각이다.

**◈ 고지원, 1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 \*공동 선두(15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109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전반에 플레이가 잘 됐고, 특히 퍼트가 잘 맞으면서 스코어를 줄일 수 있었다.

**Q. 파5 홀 공략은?**

전반에는 파5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끊어 가며 공략했다. 원하는 거리를 남긴 뒤, 웨지샷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냈다. 후반 첫 번째 파5 홀에서는 거리가 괜찮아 투온을 시도했는데, 잘 맞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.

**Q. 코스는?**

새로운 코스에서 라운드 하는 것을 좋아한다. 이번 코스는 디자인이 재밌고 도그렉, 해저드도 많아서 방심하면 안 되는 코스라고 느꼈다. 거리도 짧지만 그린이 크고 언듈레이션이 심해 그린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

**Q. 2주 휴식기는 어떻게 보냈는가?**

2주 동안 쉬지 못했다. 드림투어에 출전하고 일본 대회에도 참가했는데 오히려 경기 감각이 유지돼 괜찮다.

**Q. 드림투어와 일본에서 배운 점은?**

배운 것이 많아 힘들지는 않았다. 일본에서도 경기 운영과 쇼트게임, 하이브리드샷 하는 법을 배웠다. 그리고 매 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인내심을 얻었다.

**Q. 남은 일정에서 더 신경 부분은?**

오늘은 운이 좋아 잘 풀린 부분도 있었다. 내일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내 플레이에 집중하겠다.

**Q. 예상 우승 스코어는?**

파5홀 4개가 모두 짧기 때문에 21~22언더파 정도라고 본다. 더위에 지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스코어라고 생각한다.

**Q.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은?**

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매 홀, 매 샷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. 물론 가장 큰 목표는 우승이지만, 매 샷마다 몰입하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.

**◈ 박민지,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\*공동 3위(15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[**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772**](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772)

**Q. 경기 소감**

일단 만족하는 하루다. 하지만 놓친 찬스가 많았을 정도로 샷이 좋았는데 퍼트가 조금 아쉬웠다. 스트로크 세기나 라인 보는 것이 조금씩 안 맞았던 것 같다.

**Q. 코스?**

아기자기하고 재미있다. 파5는 투 온 되는 홀이 있어 버디 이상을 잡고자 노력해야 하고 반면 파3는 긴 편이라 조심해야 한다. 전반과 후반 코스 느낌이 다른 것도 재미있다. 마운틴 코스는 블라인드 홀이 많고, 레이크 코스는 파3가 까다롭다. 그리고 여름인데 이 날씨에 비해 그린도 많이 느리지 않고 좋다.

**Q. 남은 라운드?**

오늘처럼 쳐야할 거 같다. 전장이 긴 편은 아니지만 그린이 생각보다 언듈레이션이 있어서 가야할 곳과 가면 안 되는 곳이 정해져 있다. 아이언 샷을 조금 더 날카롭게 다듬어야 할 것 같다.

**Q. 통산 10승을 '대보 하우스디 오픈'에서 기록하며 초대 챔피언에 올랐는데, 이번 대회는 20승에 도전하면서 초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다. 어떻게 생각하나?**

일단 신규 대회인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오자마자 느낀 생각은 '귀엽다!'였다. 캐릭터도 귀엽고 인형도 정말 귀여워서 기분이 좋다. 덥지만 이런 좋은 기분으로 플레이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, 1라운드도 잘 쳤으니 우승을 노려보고 싶다. 초대 챔피언 타이틀과 함께 통산 20승까지 같이 하고 싶다.

**Q. 휴식기 동안 무엇했나?**

운동하고 먹고 자고 웃고 했다. 골프와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춰 생활했다. 그리고 신지애 언니랑 밥을 한 번 먹었는데, 언니가 좋은 말 많이 해줘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됐다.

**Q. 2주 동안 가장 보완된 것이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?**

아이언을 바꿨다. 괜찮은 느낌이다. 사실 내가 클럽에 예민한 편이라 같은 채를 10년 쓰고 했었는데, 요새는 골프에 대한 예민함을 없애려 노력중이라 바꿔봤는데 잘 맞는 것 같다.